

서평『어린이들이 꼭 알아야 할 교리문답 77』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아이 세우기



저자 싱클레어 퍼거슨 지
김향석, 권혜영 역
우리시대
원제 Big Book of Questions
& Answers: A Family Devotional
Guide to the Christian Faith

한국 교회에 교리교육에 대한 움직임이 일고 있다. 지금까지 한국 교회의 외적 부흥은 세계 교회사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였다. 그러나 90년대까지 성장하던 한국 교회는 성장을 멈추고 쇠퇴일로에 있다. 교인 수는 급격하게 감소하였고 사회로부터도 외면을 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 교회가 성장을 멈추고 쇠퇴하는 이유는 다양한데 포스트모더니즘 사상의 유입, 진리의 상대화와 파편화, 저출산과 고령화, 교회내의 다양한 부조리와 도덕적 불감증, 천편일률적인 외적 성장의 추구, 교회교육의 질 저하 등을 들 수 있다. 이 중에서 신앙과 믿음의 기본을 잃어버리고 방향성과 목적을 상실하게 된 데는 교리교육의 부재도 있다. 어느 때부터 교회에서 교리교육이 소홀해지면서 다양한 프로그램과 활동, 행사가 한국 교회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한국 교회가 이 땅에 뿌리를 내리고 부흥의 발돋움을 했던 시기는 어렵고 암울했던 일제 강점기였다. 오히려 이 시기의 한국 교회는 부흥회보다는 사경회를 통해 말씀의 진리(교리)를 알아 신앙을 고백하고 행함과 실천으로 살아가던 시대였다. 지금의 한국 교회는 어떠한가?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 교회는 새로움을 추구함으로 개혁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돌아갈 때 개혁된다.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 말씀의 논리적 체계인 교리를 알고 말씀에 기반을 둔 신앙고백을 통해 삶을 살아가야 하는 시기이다.

이러한 때 한국 교회 내부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면서 교리교육이 주목을 받고 있다. 신앙의 기본과 뿌리로 돌아가자는 목소리가 교회 안에서 조용히 일어나고 있다. 지금까지 외적 부흥을 위해 힘쓰던 교회가 내적 성찰을 통해 신앙을 점검하고 기독교 진리가 무엇인지를 다시 숙고함으로 교리를 배우고 알아 가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이런 현상은 한국 교회를 위해 고무적인 일이다. 신앙의 기본을 확고히 다진다는 차원에서 한국 교회의 미래에 희망을 보여준다.

사실 교리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며 뿌리이다. 교리는 성경의 진리 전체를 포괄적으로 다루면서 믿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향점이다. 교리는 성경의 진리를 가장 명확하고 체계적으로 제시해 놓은 신앙고백이다. 교리는 교회가 오랫동안 성경의 진리를 위해 투쟁한 영적 싸움에 대한 승리의 결과이다. 역사적으로 교리가 정립된 시기는 교회를 잘못된 사상과 가르침의 혼란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고 거짓을 막아 낸 시대였다. 교리는 교회 공동체가 공적으로 진리를 표명한 신앙고백으로 교회의 믿음과 신앙에 없어서는 안 되는 진리 체계이다. 역사적으로 개신교 교리는 그 시작을 알리는 종교개혁에서 만개했다. 교리교육은 한국 교회를 다시 살리는데 있어 사활이 걸린 문제이다.

한국 교회가 교리의 중요성을 알아가는 시점에 유아와 어린이를 위한 교리교육에 대한 책이 나왔다. 저자인 싱클레어 퍼거슨(Sinclair B. Ferguson)은 개혁주의 장로교회의 목회자이자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조직신학 교수이다. 조직신학 교수답게 책의 구성은 개혁주의 전통의 조직신학 체계를 어린이가 이해하기 쉽게 소개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개혁주의 교리교육은 문답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요리문답의 형태로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에게 교육되어 왔다. 저자는 교리교육의 전통적인 문답식 교육방법



이정규 강원대학교 물리학과를 졸업하고 개혁신학연구원(M.div.)에서 신학을 공부하였다. 한국성서대학교에서 보육학(M.ce.)을, 총신대학교원에서 기독교유아교육을 전공하여 학위(Ph.D)를 취득하였다. 현재 예정원어린이교육재단, 예정원교회에서 목사로 섬기고 있다.

을 통해 기독교의 핵심교리들을 어린이들에게 소개한다. 특히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교리교육 교재나 교육방법이 부재한 한국 교회에 이 책은 어린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포괄적이며 함축적으로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인격의 80%가 형성되는 어린 시절은 교육학적인 측면에서 중요한 시기이다. 이러한 어린 시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교리로 배우고 이해한다는 것은 평생에 걸쳐 하나님 진리의 영향을 받으며 자란다는 의미이다. 사실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렸을 때 소요리문답을 통해 교리교육을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다.

본서 『어린이들이 꼭 알아야 할 교리문답 77』는 기독교 교리의 핵심을 77가지의 문답형식으로 만들어 어린이가 교리를 배울 수 있도록 하였다. 가정에서는 부모와 자녀가, 주일학교에서는 교사와 어린이들이 하나의 교리적 주제를 가지고 묻고 답하는 형식으로 쉽게 교리에 대해 생각하고 배울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하나의 교리 주제에 대해 질문하고 답하도록 만들어져 있

며 몇 가지 질문을 통해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관련된 말씀을 찾아 암송하여 교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게 해준다. 또한 주제에 맞는 교리문답 활동을 통해 어린이가 직접 교리를 통해 배운 것을 적용하도록 제시하며 어린이가 스스로 마무리 기도를 하도록 안내해 준다.

1문-8문답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 묻고 대답한다. 나는 누구이고 어디로부터 왔는가를 묻고 답하면서 참되신 하나님은 자존하시는 분이시며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존재하시고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임을 고백한다. 또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신 하나님이라고 소개한다. 9문-12문답은 죄가 세상에 어떻게 들어왔는가를 알려준다. 죄가 무엇이며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 어떻게 죄로 인해 타락하여 무슨 일들이 벌어졌고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여 준다. 이러한 타락한 세상에 대해 13문-16문답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다룬다. 하나님의 계획은 세상과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이 땅



에 보내주시는 것임을 문답형식으로 소개한다. 17문-28문답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다룬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 공생애 사역,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 부활과 승천, 현재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시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분임을 소개한다. 또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선물임을 말한다. 28문-37문답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산상수훈의 팔복을 그리스도인의 바람직한 삶과 모습의 실제로 제시한다. 그리스도를 닮아 가는 삶은 성령 안에서 팔복을 행하며 누리는 삶을 저자는 보여 준다. 38문-50문답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이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 가르친다. 특히 구약 성경의 십계명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준다. 51문-54문답은 성경이 우리를 도울 수 있으며 무엇을 말하고 어떻게 성경 말씀을 알 수 있는지에 대해 다룬다. 55문-64문답에서는 기도가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각 절로 나누어 설명한다. 저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들으시고 자신의 영광을 위해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분임을 소개한다. 65문-72문답은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임을 말하면서 교회의 역할과 사역, 예배와 성례(성찬과 세례)에 대해 설명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을 도울 수 있다고 말한다. 73문-77문답은 예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하실 것임을 약속했으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이 마지막 날임을 다룬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일어나는 일들과 마지막 종말의 때에 그리스도인들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살 것임을 소개한다.

본서는 성경의 교리들을 개혁주의 전통 안에서 포괄적으로 다루면서 어린이가 쉽게 교리를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하나님, 인간의 죄와 타락, 하나님의 계획, 예수님, 구원, 팔복, 십계명, 성경, 주기도문, 교회, 종말에 대한 교리에 대해 묻고 답한다. 호기심이 생기고 궁금한 것이 있다면 다시 질문을 하고 생각하면서 이야기를 나눈다. 어린이가 생각하고 이야기를 나눈 것이 성경과 일치하는가를 찾아보고 말씀을 암송한다. 주제 교리와 관련된 활동 작업을 통해 이해의 폭을 확장시키면서 삶의 적용으로 연결시킨다. 간단하면서 단순한 내용이지만 어린이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구성이다. 솔직히 교리를 어린이에게 맞게 구성한다는 것은 어려운 작업이다. 그러나 저자는 어린이에게 어렵지 않게 교리를 소개한다. 본서는 읽고 접어두는 책이 아니라 가정과 교회교육의 현장에서 적용되고 사용할 수 있는 책이다.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들과 같이 교리여행을 본서와 같이 떠나보면 어떨까? 주일학교에서 교사들이 아이들과 함께 본서와 같이 교리를 탐구하면 어떨까? 어린이가 하나님 말씀의 명확한 체계인 교리를 이해하고 받아들여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자리까지 나간다면 다음 세대를 향한 한국 교회는 소망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어린이가 교리교육을 통해 신앙을 고백하고 믿음의 씨앗을 키워간다면 한국 교회를 살리는 거룩한 그루터기들이 될 것이다. 본서가 가정과 교회교육 현장에 적용됨으로 우리의 어린이들이 신앙을 고백하는 자로 성장해 가기를 기대해 본다. 